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참 고 자 료	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 6. 8. (금)	담당부서	전자전기과 전자부품과
담당과장	이진광 과장 (044-203-4340) 박영삼 과장 (044-203-4270)	담 당 자	박상호 사무관(044-203-4344) 김휘강 서기관(044-203-4271)

산업부 장관, 이차전지·반도체 업계와 현안회의 개최

▶ 중국과의 경제·산업협력이 본격화 됨에 따라, 업계 대표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중 기업애로 해소 및 미래 발전 전략 등 논의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백운규)는 6. 8.(금) 백운규 장관 주재로 이차전지 및 반도체 업계 경영진과 현안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했다.

○ 이 회의는 한중 산업장관회의(5.24)와 상무장관회의(6.5) 결과에 대해 업계와 공유하고 대(對) 중국 기업애로 해소와 미래 발전 전략 등을 논의를 위해 열렸다.

【 행사개요 】

※ (**일시/장소**) '18. 6. 8.(금) 07:00~07:50 / **더 플라자 호텔 (서울)**

※ (**산업부 참석자**) **장관,** 통상차관보, 소재부품산업정책관, 시스템산업정책관 등

※ (**업계 참석자**) (삼성SDI) 전영현사장, (LG화학) 김종현부사장, (SKI) 강상훈 본부장, (삼성전자) 진교영사장, (SK하이닉스) 박성욱부회장 등

※ (**주요 내용**) 한중 산업장관회의 및 상무장관회의 결과/對중국 현안 공유, 미래 산업 발전 전략 논의, 업계 건의사항 및 자유토론 등

□ 백운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과의 정부간 협력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, 이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중국내 기업 활동에도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.

○ 또한, 이차전지와 반도체는 우리가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분야로, 차세대 선도자(First mover)로 후발국의 추격에 대비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전략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.

○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공지능(AI)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분야로 반도체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, 이의 근간인 시스템 반도체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,

○ 이차전지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뒤를 이을 차세대 배터리기술에 대한 선제적 연구개발 투자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선도하는 혁신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□ 참석자들은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,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 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○ 한편, 미래 산업발전 방향과 관련하여, 업계 대표들은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선제적인 연구개발과 국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기 투자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.

□ 백운규 장관은 앞으로도 양 분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임을 강조하고

○ 기업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선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기를 당부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상호 사무관(☎ 044-203-4344), 전자부품과 김휘강 서기관(☎ 044-203-42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

□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□ 작년 12월 **VIP 국빈방문으로 한중관계가 정상화**궤도로 복귀하면서 정부차원의 **경제·산업협력도 점차 본격화**되고 있으며, **한중 FTA 서비스·투자 협상**이 올해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.

○ 지난달 한중산업장관회의(5.24)시에 먀오웨이 공신부장에게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고, 중국 정부는 우리기업이 생산한 셀이 장착된 자동차 차량형식 승인을 해주는 등 **일정 부분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**

* 80여분간 시주석 어록으로 배터리만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, 먀오 부장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제2/제3의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발언

* 한국 3사 화이트리스트 등재 및 SKI 셀이 장착된 북경벤츠차 형식승인이 통과

○ 지난 6.5일 **중샨 상무부 부장**을 만나, 중국 내 반도체업체에 대한 현장조사(5.31) 관련 공정한 처리를 요청하였으며,

- 중샨 부장은 외국기업의 대중 투자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며 **반도체 가격 담합 의혹 조사문제는 담당 부처와 소통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**고 답을 하였습니다.

□ 중국 투자 기업인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 정부간 협력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, 이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중국내 기업활동에도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신경쓰겠습니다.

○ 다만, 우리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조치가 이뤄지는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

○ 정부는 **지속적으로 중국의 이행상황을 점검**하고, **중국정부**에 **우리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관철**해 나갈 것입니다.

□ 한편 이차전지와 반도체는 **우리가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분야**로, 차세대 first-mover로서 후발국의 추격에 대비하기 위한 **치열한 고민과 전략마련이 필요**한 시기입니다.

○ 반도체의 경우, 중국은 **반도체 수입량이 원유수입량을 크게 상회**하는 상황에서 기술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**우리업계에 대한 견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**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

* 중국의 반도체 : 원유 수입량('17년) : 2,596억불 : 1,608억불

- 향후에도 **반도체시장을 이끌어가는 first-mover**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경쟁국과의 **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에 대한 연구**가 필요하며

- 특히, **4차 산업혁명 및 5G 시대 도래**에 따라 AI를 기반으로 **모든 산업분야로 반도체 활용이 확대되**는 추세인바, 이의 근간인 **시스템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**한 과제입니다.

- 정부는 **민간과 공동**으로 **차세대 기술·공정을 개발**하고, **핵심인력 양성**을 추진하는 한편 **기업들의 투자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등** 반도체 **선도국 지위유지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**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차전지는, 중국이 **거대한 전기차 내수시장**을 활용하여 배터리 기술을 축적하면서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**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**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

- 리튬이온 배터리의 뒤를 이을 **다양한 형태의 차세대 배터리기술**이 경합을 벌이고 있고 어느 기술이 언제 시장을 지배할지 불확실합니다.

-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기술에 대한 **선제적 연구개발 투자**와 **전기차 생태계 발전을 유도**해 기술우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

* '20년 300Wh/kg이상의 고밀도 전지개발, '25년 전고체배터리 상용화 요소기술개발

□ 앞으로도 양 분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은 충분히 듣고 새겨 **향후 정부정책에 반영**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